

[사회]

“내년엔 ‘未完의 역사’로”

■27주년 5·18 기념행사 막내려

‘사랑의 헌혈’ 등 시민 참여 저조 아쉬움 지역주의 극복하고 세계로 지평 넓혀

아쉬움 속에 또, 5월은 갔다. 5·18 민주항쟁 제27주년 기념행사는 2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부활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20면> 80년 당시 도청에서 최후까지 항전하다 숨진 시민군들의 넋을 기린 ‘부활제’에서, ‘살아남은 자(者)’들은 부끄러움으로 다시 내년을 기억했다. 최초 발포 명령자·미국의 역할·암매장·헬기 기총사격·학살원흉의 증언 등등... 실제적 진실 규명 작업이 여전히 미완(未完)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참여해요 5·18 함께해요 6·10’이라는 광주민중항쟁 제27주년 슬로건은 빛을 바랬고, 시민들의 참여도 저조했다. ‘사랑의 헌혈운동’에는 단 1명도 참여하지 않는 등 대부분 행사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똑같은 진행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 ‘6·10 항쟁 제27주년 기념행사’와 연계도 ‘미리 가보는 6·10행사’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올 행사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세계로 지평을 넓혔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았다. 광주학살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서 세운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정수만) 등 5월 단체들은 제임 당시 ‘5·18 특별법’을 제정할 점 등을 인정, 그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전남대는 올해 처음으로 ‘후광 김대중 학술상’을 제정, 5·18 등 한국 현대사 연구에 실전적 노력을 해온 브루스 커밍스(미국 시카고대) 교수를 제1회 수상자로 결정했다. ‘(사)오월 어머니의 집(관장 안성례)도 ‘제1회 오월 어머니상’을 마련, 수상자로 ▲심금순(작곡)·박정자 ▲김영남(작

고)·성수남씨 부부 ▲1980년 당시 원종 모방노동조합 등을 선정했다.

80년 5월 도청 현장에서 산화한 고류동훈(한신대 2년) 열사의 추모비도 만 27년 만에 광주 신광성결교회에

세워졌다. ‘들불야학’의 고 윤상원 열사의 동상은 6월3일, ‘6·10 항쟁’의 상징 고 이한열 열사의 흉상은 7월5일 모교인 광주 살레시오고교와 진흥고에 우뚝 섰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으로 세운 탑이, 5월 영령들의 넋을 결코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하여, 27일 ‘부활제’에 참석한 학생·시민·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을 힘껏 외치며 대동단결을 약속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다시 살아나는 승리의 5월

5·18 민주항쟁 제27주년 기념식의 마지막 행사로 2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부활제’ 문화패 ‘모난돌’ 회원들이 ‘다시 살아나는 승리의 5월’이란 공연을 통해 80년 광주의 5월이 ‘패배가 아닌 승리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울대 인문대 조기 전공선택 의무화

서울대 인문대는 최근 학과장회의를 열어 인문 I(어문계열)과 인문 II(역사·철학계열) 학부생 모두 입학 후 3학기 내에 전공 진업을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인문 I의 학과별 정원을 고정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서 2학년 2학기 24학점을 이수한 뒤 전공 진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3학기 36학점을 이수하고 나서는 반드시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인문대는 또 학과별 졸업 현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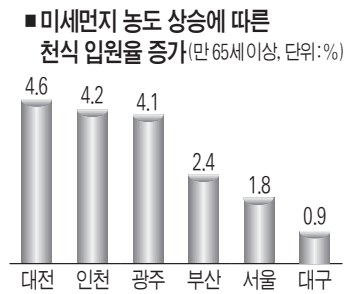
방지하고 학생 과밀·과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학과별 인원을 고정했다.

학과별 정원은 ▲영문과 28명 ▲국문과 25명 ▲중문과 22명 ▲다른 학과 15~16명으로 정해졌으며, 신청 인원이 많더라도 최대 학과 정원인 120%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광주 환경질환 ‘민감’

광주 시민들이 대기오염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노년층의 천식 입원율은 4.1%로 전국 대도시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서울대 의대 호흡철 교수팀은 27일 미세먼지 농도가 40μg 올라갈 때마다 천식이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도가 평균 1.7~1.9% 높아지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0.5ppm 높아지면 뇌졸중에 걸릴 위험도가 4.6% 올라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증가 따른 노년층 천식 입원율 4.1%로 전국 세번째

아질 때 뇌졸중에 의한 입원율은 평균 4.6% 높아졌다. 특히 만 65세 이상은 4.7% 높아진 반면 65세 미만은 0.1% 높아지는데 그쳐 만 65세 이상의 입원율이 65세 미만에 비해 47배에 이르러 노년층에 미치는 건강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천식 입원율은 ▲대전 4.6% ▲인천 4.2% ▲광주 4.1% ▲부산 2.4% ▲서울 1.8% ▲대구 0.9% 등이다.

미세먼지 증가에 의한 뇌졸중 입원율은 ▲대전 4.6% ▲인천 3.3% ▲광주 2.7% 등으로 높고 부산 1.9%, 서울 1.6%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로는 대전과 인천 등지 주민들이 대기오염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일산화탄소에 의한 입원율도 대전이 15.1%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은 4.8%, 부산 3.6%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선대 총장 선거 기존처럼 직선제로

오는 9월 실시 예정인 조선대 13대 총장 선거가 예비선거 없이 기존처럼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1차 투표 과반수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차기 총장 선거를 기존과 같이 직선제 방식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앞서 교수평의회는 지난 4월 후보 난립과 답답 가능성 차단을 위한 예비선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총장 후보자 선출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회는 또 오는 6월22일까지 대학자치협의회에 선거 일정과 선거인단 수 등 ‘총장 후보자 선출 규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자치협의회는 교수평의회·총학생회·직원노조·총동문회 등 4개 단체 대표로 구성된 조선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한편 조선대 총장 선거 후보로는 현재 강동완(53·치과대학)·박대환(52·외국어대 독일어과)·서재환(58·의과대학)·신인현(53·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이용보(61·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전호중(53·의과대학)교수 등 6명이 거론되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흐려지는 하늘 5월 28일 (음 4월 12일) ◇전국날씨

오후 늦게 구름이 많아지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차차흐리겠다	18~26℃
대전	차차흐리겠다	18~25℃
인천	차차흐리겠다	19~25℃
부산	차차흐리겠다	18~24℃
서울	차차흐리겠다	14~27℃
대구	차차흐리겠다	14~27℃
충청	차차흐리겠다	15~24℃
경상	차차흐리겠다	17~26℃
전남	차차흐리겠다	14~27℃
전북	차차흐리겠다	16~26℃
제주	차차흐리겠다	16~24℃
울릉도	차차흐리겠다	17~27℃
독도	차차흐리겠다	14~27℃

서울대 기상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5월 28일 전국 대부분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지역은 오후 늦게 구름이 많아지겠다.

도시	최저/최고
광주	17/25
대전	15/27
인천	14/27
부산	15/25
서울	18/24
대구	15/27

‘초여름 휴일’ 순천 아저 29.7도

5월의 마지막 휴일인 27일 광주·전남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씨 속에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 기온은 순천 29.7도를 최고로 안도 29.4·고흥 28.9·광주 28.6도까지 올랐다. 흑산도 지역은 28.6도를 기록, 지난 1997년 기상 관측 이래 5월 최고기온을 나타냈다. 이날 고온 속 광주지역 ‘블랙지수’가 ‘75’(10% 정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까지 오르자 유명 유원지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의

나들이 행렬이 계속됐다. 무등산에는 2만 명이 넘는 등산객이 찾아 더위를 식혔다. 이의 페밀리랜드에는 4천500명, 송산유원지에는 3천 명이 넘는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찾아 휴일을 즐겼다. 시내 수영장과 حمام 돌머리 해수욕장 등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로 북적였다. 주말인 26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28.8도로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또 5월 마지막 주 낮 최고 기온은 23~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전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교원들 “공헌도 높지만 지위 낮아”

우리나라 교원들은 다른 직업과 비교할 때 사회 공헌도는 높지만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원 576명을 비롯해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대생 등 총 1천249명을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교원들은 교직을 포함한 25개 직업군의 사회 공헌도 평가에서 초등 교원을 1위로 꼽았고 중등 교원을 5위로 평가했지만 사회적 지위는 각각 14위, 13위로 매겼고 경제적 지위는 각각 17위, 15위로 평가했다. 사회적 지위 평가에서는 국회의원, 판·검사, 의사, 대학 교수 등을 선정했다. 경제적 지위 평가는 국회의원, 의사, 판·검사, 연예인, 기업가 순이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사회 공헌도 평가에서는 초등 교원이 5위, 중등 교원이 9위였고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사회공헌도와 비슷한 10~13위 정도였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6월 1일 첫진도 개강

고용보험제자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빅마트 앞 전일빌딩 옆 광주은행 4F)

국비무료모집

과정	교육내용
기업사무자동화인력양성	윈도우XP, 워드, 엑셀, 컴퓨터활용능력 등 영세자영업자 교육(07/6/1~3개월)
다양한 기능 숙득(시간: 9:10-13:00)	

*영세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보통상업, 학습지교사, 골목장경기보조원)로 전액 국비교육, 교재무료제공, 수강지원.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자격자과정(교육기간)	교육내용(교육시간)
주택관리사(월-토)	교육기간: 6/4-7/31 (월-금: 19:00-22:30, 토: 15:00-18:30)
공인중개사(월-토)	교육기간: 7/2-8/31 (월-금: 19:00-22:30, 토: 15:00-18:30)
주택관리사 주말반(토,일)	교육기간: 7/7-8/26 (토14:00-20:00, 일10:00-17:00)

개강 6/4 사무자동화(월-금)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사무자동화실기 대비

기타 사항

- 고용보험기간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환급
- 수강절차: 훈련 상담→훈련수강신청서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저지직강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강의 DVD 녹화대여로 반복학습

버스노선: 전남여고→봉선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81, 518, 예술의거리입구→중앙07, 금남56, 대촌70, 대촌170, 문화전당역(구 도청)→진월07, 점선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8, 금남57, 금남58, 금남59, 중앙61, 문충80, 두암82, 518, 1187

☎ 노동부직접능력개발훈련시설 ☎

현대직업전문학교

224-4560, 224-4580, 232-1088

위치: 동부경찰서앞 http://www.hdedu.co.kr

= 전남 행정직 7급 21명, 9급 154명, 시험 10월 13일 시행 =

7.9 급 공무원 대비

속보 = 전남 9급 교육행정직 을 하반기 시행 =

◎채용인원: 000명(약50명)이상 필듯, 합격에 절호의 기회◎

※ 05년 12월 11일 165명 공채, 1875명출원, 응시률 9:1 경쟁이었다 ※

서울 7월 8일 · 전남 6월 23일 · 전북 9월 8일 시행 =

개강 6월 1일 주야(출퇴근)반 모집 (현재 상담 접수중)

46년 전통의 “無等”은 “꼭” 합격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

www.mdgosi.co.kr ☎ 222-4560

BUCK SH BUCKISH

전국대리점 정찰기격입니다

꾸레오 이제는, 맞춰입는 기성복으로!

전통 영국신사의 멋과 합리주의 정신 **벅시(BUCKISH)**의 품격을 만나 보십시오

기성복보다 저렴하고 맞춤복보다 기품있는 영국식 합리주의 맞춤정장, **벅시** 벅시만의 자랑 비정착 맞춤정장

기성복을 사자니 딱 맞지 않는 사이즈가 있고 맞춤정장을 고집하시니 가격이 부담스러웠다며 이제 영국식 합리주의 맞춤정장, 벅시를 만나보십시오.

양모직질소 아세아극진

복합성기 BUCKISH 벅시유동점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57-32 전 화: 062-514-1741

팩 스: 062-514-1745 휴대폰: 011-9603-1741

Speed 인생역전! 대학편입, 의치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합격생 70% 김영출신

- 의치학, 한의학전문대학원대비반
- 약대/한의대/수의대 편입대비반
- 08년 편입시험 대비반(일반편입/학사편입)

개강 6월 1일

수준별 맞춤이론 강좌: 기초-이론-적용-핵심-심화

개설과목: 영어, 언어추론,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그 동안 김영출신 11만 5천여명 합격

www.kjkimyoung.co.kr

김영(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뒤 227-8088